



2013 서울국제도서전 성료

‘책, 사람 그리고 미래’ 주제로 25개국 610개 출판사 참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후원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형두)가 주최한 국내 최대 책잔치인 ‘2013 서울국제도서전’이 지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책, 사람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19회 서울국제도서전에는 25개국 610개 출판사가 참여해 아동도서를 비롯해 인문사회, 과학, 문학, 예술, 철학 등 전 분야의 도서를 소개했다. 특히 개막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가했으며,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지에 대해 소개하고, 직지영인본을 전달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박근혜 대통령, 개막식 행사에 참석

6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된 개막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형두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과 더불어 올해 주빈국으로 참가하는 지틴 프라사다 인도 인적자원부 장관, 한국-캐나다 수교 50주년 기념 킬치포커스로 참가하는 마이클 대나허 주한 캐나다 부대사, 그리고 각국 주한

외교 사절 등을 비롯해 출판·

문화계를 대표하는 국내외 주

요 인사들이 대거 참가했다.

현직 대통령이 서울국제도서전 행사에 참석한 것은 1995년 김영삼 대통령과 1999년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윤형두 출협 회장은 기념사에서 “바쁜 일정 가운데도 귀한 시간을 내주시 박근혜 대통령과 책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은 1977년과 1978년 대통령 영애자격으로 도서전에 참석한 후 오늘 국가의 원수자격으로 다시 방문했다.

책을 사랑하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라며 “책을 통해 하나되는 날인 서울국제도서전은 1954년 처음 문을 열었다. 올해 도서전은 한국출판의 근간이 된 조선화자의 책 특별전을 비롯해 출판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도서전이 책을 매개로 독자와 저자가 만나는 ‘책 축제

의 장’, 국내외 출판 관계자들이 자사의 책을 알릴 수 있는 ‘열린

홍보의 장’, 비즈니스 역할을

수행하는 의미있는 ‘저작권 거

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

했다.

박근혜 대통령

“기록문화는 자랑스러운 우리문화 근간,,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에서 “세계인의 책 축제인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을 축하한다. 책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인류가 남긴 지혜의 보고다.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졌더라도 우리는 좋은 책에 담긴 글귀를 보면서 서로의 생각과 철학적 가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었다. 나 역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낼 때 책을 통해 이겨낼 수 있



1. 2013 서울국제도서전 직지체험 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지를 전달하는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장 2.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장이 직지 영인본을 증정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열어 보았다. 3. 직지시연 부스에서 이창석 각자장이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4. 개막식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5. 박근혜 대통령 전시장 투어 중 관심 있는 책을 구매하기도 했다. 왼쪽은 김지숙 책세상 대표(전 인쇄연합회장) (사진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5천년의 문화유산을 이어오면서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들었다. 또한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어제 세계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돼 우리나라는 11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예부터 이어져 온 훌륭한 기록문화야말로 자랑스러운 우리문화의 시작이고 근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의 주제가 책, 사람 그리고 미래다.

역사적으로 책을 통해 많은 인재가 탄생했고, 그 인재들이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 왔다.

새 정부는 출판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직지에 큰 관심 "인쇄문화 발전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 후 이어진 전시장 투어를 진행했는데, 처음 찾은 곳이 조선활자책 특별전과 직지시연

부스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창석 각자장이 직지 마지막장을 시연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은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는 1377년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제작됐으며, 원본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책을 만들 때 모두 이런 방법으로 했는가"와 "직지가 구텐베르크 성서보다는 얼마나 앞서 제작

되었는가"를 질문하기도 했다. 직지에 대한 설명 후 김남수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100만 인쇄가족과 선조

들의 얼을 담아 드린다"며 직지 영인본을 증정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같이 열어보자"며 직지 영인본을 살펴봤다.

전시장 투어 후 이어진 VIP 간담회에서도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이 "직지와 인쇄문화 발전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관심 있게 들었다. 인쇄문화가 발전하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김남수 회장

“직지와 인쇄문화발전에 관심 가져달라”



6-8. 대한인쇄문화협회와 청주고인쇄박물관은 고인쇄문화홍보관을 조성해 직지 및 고인쇄문화를 홍보했다. 9. 2013서울국제도서전의 주빈국인 인도, 컬처포커스로 참여한 캐나다

주빈국 인도·컬처포커스 캐나다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의 주빈국은 인도로, 1000여 권에 이르는 아동 및 일반 도서를 전시했다. 아시아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를 포함해 7인의 인도 노벨상(문학, 물리학, 생리학, 경제학, 화학상 등) 수상자들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인 '인도의 영혼들'을 비롯해 '인도 소설 속 인물' 등을 선보였다.

'마하트마 간디전', '인도 일러스트 작가 삽화전', '인도 영화 100년사', '가락국 야요디아 공주 특별전' 등 인도의 전통과 이색적인 문화유산을 느낄 수 있는 특별전과 '인도 음식 맛보기', '발리우드(Bollywood) 영화 상영' 등 인도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진행됐다.

컬처포커스로 참여한 캐나다는 마가렛 앳우드, 안 마텔 등 캐나다 작가 4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특별전을 개최하고, 2011 캐나다 총독상을 수상한 '털복숭이 친구들' 동화작가 겸 화가인 캐롤린 메를라의 작품세계를 소개하고, 사인회와 경품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 글쓰기 등

을 진행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서 대한인쇄문화협회와 청주인쇄박물관은 고인쇄문화홍보관을 조성해 직지 및 고인쇄문화를 홍보했다.

'조선 활자 책 특별전'과 '김동리 선생 탄생 100주년전'

'조선 활자 책 특별전'은 출현이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기록문화 유산'을 테마로 한 세 번째 특별전이다. 2011년 '우리의 찬란한 기록문화 유산'을 시작으로 2012년 '잃어버린 한글 활자를 찾아서'에 이어 올해는 조선시대 초기 활자인 계미자부터 구한말의 연활자까지 100여종에 이르는 옛 활자 전시를 통해 한국출판의 근간이 된 활자문화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 외에도 도자기 활자, 바가지 활자 등 100여 종의 조선 활자 책이 전시됐다. 특히 이번 전시에 소개된 조선 태종이 만든 조선의 첫 금속활자인 계미자본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1440년대 말 금속활자를 발명해 '세계심판'과 '천문역'을 인

쇄하고 1455년 전후에 '42행 성서'를 간행한 때보다 40~50년이나 앞선 것이다. 이번 전시가 의미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활자 인쇄문화의 우수성을 조선시대라는 한 특징적인 때를 기준으로 연도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첫 전시라는 데 있다.

'김동리 선생 탄생 100주년'은 '무녀도'로 대표되는 소설가이자 시인인 김동리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철학과 문학세계를 돌아보는 전시회다. 전시회에는 을유문화사판 무녀도 초판본, 수선사판 황토기 초판본, 김동리 선생의 각종 원고와 교정지, 생전에 쓰던 물품 등이 전시됐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그의 애제자였던 박경리, 이문구 작가의 책과 유품도 함께 소개했다.

그 외에도 '우리동네', '골목놀이' 등을 주제로 삽화(일러스트레이션)가 뛰어난 그림책을 전시하는 '주제가 있는 그림책', 북아트스트 5인이 참여한 '북아트 '0'의 답론전', 그림책 '눈', '가시산' 등 2013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작을 전시하는 특별전, 북디자인, 소설가, 평론가, 미술가 각 분야 전문가가 바라본 '아름다운책특별전', 일러스트레이터 120명의 작품이 전시된 '일러스트레이터스월' 등도 진행됐다.

박범신 작가 등 총 21명의 작가 참여

이번 도서전에서는 독자와 저자가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더욱 확대됐다. '저자와의 대화'는 매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진행되는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올해는 2013 동인문학상 후보에 오른 '비자나무 숲'의 권여선, '매운 눈꽃'의 이동하, '지상의 노래'의 이승우, '정크'의 김혜나, '숲의 대화'의 정지

아 작가와 2013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인 박범신 작가 등 총 21명의 작가들이 독자들과 만났다.

광고인 박웅현, 전 국회의원 유시민 등 유명 인사 6명이 진행한 '인문학 아카데미'는 문화, 역사, 고전, 미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강의를 통해 독자들이 인문학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양한 출판전문가 세미나 개최

2013서울국제도서전에는 출판전문가를 위한 다양한 세미나도 진행됐다. 출판유통진흥원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국제출판산업 전문가를 초청해 출판유통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모델 소개, 출판산업의 최신 동향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출판한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출판 수출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형근 서울셀렉션 대표가 한국도서수출 활로는 무엇인가, 이구용 KL매니지먼트 대표가 출판한류의 진단과 대응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이어 이창경 한국출판학회 이사(신구대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영국 출판시장 현황 세미나, 브라질, 이스라엘, 베트남, 터키 등 새로운 시장의 출판 시장 소개 세미나, 독서진흥세미나 등도 열렸다.

유진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9회째를 맞은 서울국제도서전이 명실공히 세계 속의 국제도서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출판계가 애써 줄 것을 당부한다"며 "책, 사람,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도서전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책 문화를 즐기고 책으로 행복한 참여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1. 조선 활자 책 특별전



12. 김동리 선생 탄생 100주년전